

10주년 맞이한 (사)한국당뇨협회의 당뇨캠프



2007년 8월 말. 올해도 어김없이 당뇨인을 위한 캠프가 개최되었다. (사)한국당뇨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대한당뇨병 학회가 후원하는 '당뇨캠프'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해 당뇨교육의 중요성의 의미를 더욱 부여했다. 당뇨병환자가 당뇨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임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은 당뇨와 직접 싸우는 환자와 당뇨를 연구하는 의료진 모두 깊게 깨닫고 있는 바다. (사)한국당뇨협회가 지난 10년간 주최한 당뇨캠프도 '환자의 당뇨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이 당뇨관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올바른 당뇨관리로 들어서게 하는지에 대해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2007 당뇨캠프는 8월 27

일(월)부터 30일(목)까지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1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개최되었다. 당뇨는 짙어지고 가야할 짐이 아니라 함께 동반해야 할 친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당뇨캠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당뇨캠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3박4일간의 당뇨캠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깨달을 수 있는지 지면을 통해 만나보자.

미국 소아 당뇨캠프에서 출발

당뇨캠프가 처음 개최된 시기는 인슐린 발견 직후인 1925년도이다. 또 이 당시에는 소아 당뇨병환자들을 위해 개최되었는데, Wendt라는 사람이 자신의 별장에서 4명의 소아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 뒤 두 번째로 개최된 당뇨캠프는 1928년 은퇴한 의사와 영양사 등을 포

함, 7명의 소아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해가 갈수록 의료진과 환자의 참여를 비롯해 그 규모도 계속 성장해왔다.

이에 1937년에는 뉴욕당뇨협회(NYDA)가 당뇨캠프를 공식 후원하게 되었고, '캠프 NYDA'가 정식으로 발족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후 당뇨캠프와 교육 효과가 알려지면서 약 40년 뒤인 1967년경에는 약 37개의 소아 당뇨캠프가 개최되었고, 오늘날 미국당뇨협회는 약 70여개의 당뇨캠프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당뇨캠프, 본 협회에서 최초로 시작

우리나라 최초의 당뇨캠프는 1981년 광주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캠프도 소아 당뇨병환자를 위한 캠프였다. 또 1986년 경인지역의 뜻있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으로 소아 당뇨캠프가 실시됐고, 그 후 지역별, 병원별로 당뇨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당뇨캠프의 시작은 소아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성인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당뇨캠프가 많이 생기고 있다. 성인 당뇨캠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8년 (사)한국당뇨협회가 최초로 실시해 현재 10년이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사)한국당뇨협회, 1998년 첫 성인 당뇨캠프 개최

(사)한국당뇨협회는 1995년 보건복지부 허가로 당뇨병환자의 교육과 홍보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환자의 교육과 당뇨홍보·예방을 위해 공개강좌, 무료혈당측정 캠페인, 걷기대회, 당뇨전문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1995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당뇨 교육 캠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사)한국당뇨협회는 성인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교육을 통해 당뇨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또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마침내 1998년 제 1차 성인 당뇨캠프가 강원도 용평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 때 당시 지금처럼 많은 인원과 의료진이 참여하지는 않았고 미흡한 부분이 많

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당뇨캠프에 참여해 그동안 몰랐던 당뇨정보와 관리방법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고, 의료진과 시간과 공간상의 문제로 상담조차 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상담 할 수 있었다. 본 협회가 추진하는 당뇨캠프의 의미는 당뇨에 관한 무지를 일깨우고, 환자의 의지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있다. 당뇨는 환자가 얼마큼 공부하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당뇨관리 결과가 달라진다. 10년간 실시된 당뇨캠프에서는 식요소법의 실제와 당뇨병의 약물요법, 또 당뇨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 등을 포함해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실습과 실천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당뇨캠프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그 동안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당뇨캠프에서 만났으며 캠프 참가자들은 당뇨캠프에서 만난 인연으로 아직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모임도 있다. 스텝진과 프로그램도 한층 다양해져 당뇨교육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떠들고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도 마련되었다. 의료팀, 영양팀, 간호팀, 약제팀, 사회복지팀, 이벤트팀 등 여러 분과별로 어떻게 하면 참가자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교육을 받고 얻어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 1998년 제 1차 성인 당뇨캠프가 개최된 이래 2007년 10주년에 이르기까지 당뇨캠프에 참가했던 인원은 대략 1,000명이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1,000명 당뇨병환자가 당뇨캠프를 통해 당뇨관리에 한발짝 더 앞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사)한국당뇨협회는 당뇨인들의 교육과 당뇨관리 방법 연구, 당뇨 홍보와 예방에 더욱 앞장 설 것이다.  글/홍지영